

도시빈민 시리즈 <4> 르포 - 빈민촌의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속의 '이방村'

"야! 이거 멋있지?"
"나 하나만 주라."

아이들은 카세트 테이프의 줄을 돌리기에 매달아 낮게 드리워져 있는 전기를 위로 날려 보았다. 그러다 도랑에 빠져도 아랑곳 않고 다시 하늘로 날려 보았다. 출사 그 모습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불사조'와 같았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조그만 공터에는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듯 폐쇄된 포장마차가 후미진 구석에 놓여 있었고 부서진 가구들이 슬레이트집 지붕까지 높게 쌓여 있었다.

그 지붕과 나무더미 위로 쪽쪽 뿜어 올라간 '신반도 아파트'가 부를 상징하며 하늘 끝에서 내려다 보는 듯 했다.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기 위해 판자집과 시멘트 집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마당이 있는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문짝이 찌그러져 맞지 않아 밖에서 봐도 부엌살판이 다 보일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었다. 간간히 지나가면 작은 아이들이 보이면 부엌에서 무엇을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아주머니의 행동 반경은 사방 1미터도 되지 않아 보였다.

마을이 아파트와 맞닿은 접경지대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몇층씩 쌓여 있었고 그 것을 튼튼하게 받히기 위해 두께가 30센티가 넘어 보이고 길이가 5미터 정도 되는 쇠파이프가 강고하게 쌓여 있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쌓아 놓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밑 공터에는 악취를 풍기며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시멘트가 깨어져 불타고 드러나고 녹슬은 철근이 보이는 허물어진 집의 담벼락이

서있었다. 그 허물어진 담벼락을 바라보며 이마에 들어오기 위해 타이어 성벽(?)을 헤매다가 아파트를 향하고 있는 널판지가 생각났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서초구 잠원동 웅명마을 주민의 정당한 생존권보장요구는 주변 고층아파트 사이에 메아리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불법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도시빈민들의 생활고를 담아냄으로써, 도시빈민운동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연대의 필요성 인식과 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주)

습은 마치 농촌의 전원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사방 뻗뻗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속에 이런 풍경은 '이방인'들만이 모여사는 마을 같았다.



총 가구수 중 50% 이상 판자집 철거시 '직업 강패' 고용, 유혈 폭력 사태급증

다. 그 위에는 검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바탕에 생활고로 찌들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신명나게 춤사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대사인양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세입자대책위원회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고 손바닥 만한 발에서 상처를 가꾸고 있는 할머니에게 길을 물어보자, 저 쪽에 있는 네타나무를 가리키며 그 밑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발을 가꾸고 있는 할머니의 모

따닥따닥 붙어 있는 판자집을 지나 나타나니 아래 있는 세입자대책위원회사무실에 도착했다. 넓은 평상에 앉아 있던 주민 몇사람이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으나, 이내 학생임을 알고 다정하게 맞아 주었다.

'단결 투쟁가', '근무조 명단' 등이 적힌 대자보가 사무실 벽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이마을 형성 시기를 물어보자 서순애(47) 세입자대책위 총무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1960년대에 생겼다고 한다. 웅명마을 때 췌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웅명'이 마을이라고 명칭 지워진 이 마을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 아파트 단지 속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1950~1971년까지 실시한 정부의 '집단지주 정착사업'에 의해 입구정동동-다 지역의 철거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주민 김(60)씨는 당시의 상황을 '맨 처음 이사왔을 땐 웅명마을이 매우 지 열매지 않아, 악취가 심했고, 위낙 지저분했지, 그래도 여기에서 살아 보겠다고 판자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런데선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눌러 앉게 되었지'라고 회상했다.

집단지주 정착사업은 불량주택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정책 수단으로 도심부근의 무허가 불량주택 지구를 철거하여 도시 개발지역 외곽으로 이주시켜 정착하

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에 의해 형성된 집단 이주지는 구룡지, 하천변 등의 국공유지로서 이주민들에게 8~15평의 대지를 배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를 포함해 10여명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철거강패들이 몰려온 것이다. 이 때의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김(42)씨는 '철거 강패가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 반포 아파트 쪽에서 강패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비상벨이 울리자 1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그 눈물겨운 인간이 아니었어 8명이 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팔, 다리를 들고 끌고간 서 사람들을 개패듯이 때리더군요.

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소나무만 와도 집안에 물이 들어와 퍼 내다'고 정신이 없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공동상수도 하나를 파이프 연결하여 50여 세대가 사용했으니, 물이 애기 오줌줄기 만큼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름에 집에서 목욕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라고 서총무는 불량한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

이러한 도시빈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병균과 해충의 서식지가 되므로 그들의 건강과 관련성을 가진다. 지난 1985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영세민 밀집지역인 서울 관악구 봉천 5동과 2동, 9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구 1천명당 유병률(有病率)

그리고 임신 5개월째 이던 은지아줌마는 철거 강패들에게 배를 맞아 유산의 위기까지 처했었어요. 그래서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뭐 하나고 소리지르더니 그 높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며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강패들이 선량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보고만 있는 놈들이 범죄 전행선포는 무슨 얼어죽을 선택입니까'라고 얼굴이 시뻘배가 샅가되어 그때의 상황을 말했다.

이날 철거 강패 4백 50여명이 투입되었고, 포크레인 5대가 동원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동차타이어 4백여 개를 태워서 결국 강제철거를 막아냈고, 과정에서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자칫하면 '주책조합 건설방식'으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이 방식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준다는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주책조합에서 매일할 당시 평당 5백~7백만원씩 매입했는데, 아 글썽 요즘은 평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도대체 얼마가 넘는 겁니까.'

이 마을에 조합아파트 사업이 고시되자 투기열풍이 몰아쳤다. 결국 89년 7월 이후 1년여 만에 평값이 3~4배 폭등했다.

'부급 생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7천 5백만원의 돈을 냈다가, 아! 투기꾼들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사서 입주신청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무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 쫓길 위기에 직면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9월25일에는 타이어 4백 개 밖에 태우지 않았어요. 이제는 타이어 4천개까지 준비를 해두고 1차, 2차, 3차 바리케이트까지 쳐두고 LPG가스 통까지 준비를 해놨어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아예 누가 이기든 한바탕 해보자는 주민들의 공통된 의사입니다. '라고 서총무는 결사 항전에 만반의 준비가 갖추었음을 밝혔다.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 쫓고, 독점재벌과 투기꾼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들을 스스로 일어선고, 무장하게 만들었다. 사실



◇ 주택조합의 회유와 강요속에 또다른 고향을 찾아 떠난 일부마을 주민의 빈집

했을 겁니다. 요즘 인근 부동산에서는 입주권이 비밀리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라고 김병선(49)철거대책위원회 부회장은 탈법으로 지금 투기가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법의 그늘막을 이리저리 피하며 재개발 지구에서 투기꾼들의 무주택세대로 증명 위조, 주민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놓고 '무주택'으로 둔갑하는 방법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선례를 볼 때 이 지역도 투기꾼들의 재산증식 대상으로 제의 뿜을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만약 이 마을 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아파트 1채에 3억을 호가 할 것이다. 이 아파트 두세채의액수는 현재 이 마을에 남아 있는 33세대의 전·월세료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큰 액수이다.

인구의 1.3%인 가전자율이 65%의 땅을 독차지 하고 있다. 민중들이 전세값 마련을 못해져 살할 때, 이들은 이 막대한 돈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느라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며 전·월세값을 물려 놓았다.

그러나 정부측은 어떤 것인가? 그나마 민중들이 주택문제해결에 기대를 걸었던 금융실제와 토지 공개념 도입을 포기하며 재벌들을 비호하지 않았단다. 최근에 시종자금은 건설업·수에 집중화 되고 있고 정부 재개발 사업들을 통하여 빈민들을 주택하기 보다는 증산층이 부유층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주택 문제는 불양공급 수준으로 파악할 것이 된다. 한국사회 자본주의의 모순을 다포괄하는 문제로서 민중과 지배계급과의 대립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민중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서울 시내의 수십만 가구는 철거의 위협 속에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특별취재반
조인성 記者
방현기 記者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연변에서 온 교과서



우리나라 선생님들과 중국 연변의 동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교환했습니다.

얼마전 두산그룹 교사해외확산실의 일원으로 중국 연변에 다녀 온 서울대창중학교 오금사 선생님은 그 곳의 동포 선생님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연히 '조선어문'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우리말, 우리 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느끼면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군대 맞출법의 차이가 없고 생소한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의 교과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는 길에 '조선어문' 교과서 몇 권을 갖고 왔습니다.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고 있는 이제는 조금씩 벗어난 우리말 우리 글도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참으로 반갑고도 애틋한 마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45년이 우리 모두에게 단결과 그리움의 세월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짧지 않았던 그 세월동안 조금이라도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다시 하나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두산그룹
THE DOOSAN GROUP

● 두산그룹은 중국·소련 및 동구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교과서·우리말 사전 등을 비롯한 각종 서적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공산권 책판내지문 등에 함께 하신 분은 두산그룹 연강학술재단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주소: 동부구 동로 1가 13번지 연강빌딩
우편번호 110-121
■ 전화번호: 763-8151